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발생한 수포형 괴저괴름피부증 1 예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¹,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²

*안형진¹, 박상형¹, 서현석²

서론: 괴저괴름피부증은 희귀하고 통증, 발열을 야기하는 만성질환으로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기저 전신 질환과 연관성을 보인다. 임상상에 따라 궤양형, 수포형, 농포성, 식물성으로 분류되며 궤양형은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이 있고 네가지 아형 중에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수포형은 궤양형보다 희소하며 림프구증식과 관련이 있고 혈액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발현된 수포형 괴저괴름피부증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원발성 경화 담관염이 동반된 궤양성 대장염으로 5-ASA를 복용중인 25세 남자가 발열 및 하지의 부종과 수포형의 피부 병변으로 내원하였다. 양쪽 다리와 발에 다양한 크기의 괴사된 수포(A)가 있었으며 발의 통증과 부종, 발적, 열감을 동반한 상태였다. 혈액검사서 염증소견(WBC: 17800, ESR: 68, CRP: 11.65)을 보이며 소화기 증상으로 식욕 부진과 복통, 혈성 설사를 동반하였다. 발의 자기공명영상(MR)에서 연부조직의 괴사조직을 동반한 부종소견을 보였다. 구불창자 내시경검사에서 미란과 발적을 동반한 깊은 궤양들이 다수 관찰(B)되어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의 병변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는 괴사 소견과 호중구 침윤이 관찰되어 괴저괴름피부증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정맥주사 항생제 세파졸린과 경구 항생제 메트로니다졸, 그리고 메틸프레드니솔론 50 mg 투약하면서 점차 괴저괴름피부증의 발적과 부종, 열감이 호전되고 혈액검사에서도 염증소견(WBC: 11000, ESR: 50, CRP: 1.05)이 호전되었다. 급성기 염증상태 호전 후 병변 주변 부위 혈액 순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소 죽은조직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임상증상 호전되고 수술 상처 회복되어 경구 프레드니손과 5-ASA로 변경하여 퇴원하였다. 외래 추적관찰 중 스테로이드는 감량하여 중단하였으며 피부증상은 재발이나 병변의 악화없이 호전상태(C)로 지속관찰 중이다. 기저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복통 증상과 무른 변, 혈성설사의 반복에 대하여 인플릭시맵 추가하여 경과호전 확인하고 외래추적관찰 중이다.

